

소방설비 분야의 최고권위



하 정 호
 (방재시험소설립 추진본부과장)

우 리나라가 하루속히 개발도상국을 탈피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시책으로 되었다. 정부에서는 1973년도에 수천종에 달하는 각종 기술분야를 세분하고 해당분야의 기술인을 양성, 활용하기 위한 이른바 국가기술 자격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술자격제도를 합리화하고 이 법에 의해 배출된 기술자를 각 기업에서 채용, 우대하도록 하였다.

이 국가기술자격에는 기능계와 기술계로 분류하고 기능계의 최고 자격자는 기능장, 기술계의 최고 자격자는 기술

사를 두어 이들의 우대는 학계의 박사과 동급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각 기술의 분야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복잡 다양해지며 그 수도 증가되게 마련이지만 그 중에서도 애써이룩한 우리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분야 소방설비 계통은 근래에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는 많은 고층 건물과 대형 공장을 건설하는 데는 주력하여 왔지만 이들을 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는 기술개발은 게을리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 결과 막대한 재산과 인명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대형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의 기술개발 내지는 이를 담당할 전문 기술인이 절실히 요구되게 되어 정부에서는 1976년부터 소방설비 기술사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실시후 첫 두해는 이 분야에 대한 인식부족등으로 합격자가 없었으나, 1978년도에 당협회 김병효 차장(현 로얄점정주식회사 전무) 과 한국소방건설주식회사 최진 전무가 우리나라 최초로 기술사가 되었다. 이후부터는 많은 응시자가 있었으나 그래도 소방설비분야가 널리 인식되지 않아 합격자는 희소하여 1년에 한두명 밖에 배출되지 않았다. 1979년에는 당협회 나채수 과장(현삼성전자주식회사 안전담당), 1980년에는 당협회 윤원중 부장, 1981년에는 당협회 양성환 대리, 임익수 대리(현재 미국이민, IIT대학에서 소방학과 수학중), 1982년에는 하정호 과장이 합격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총 7명의 소방설비기술사가 배출되어 이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활약하고 있다(국내에는 6명이 있음).

한편 소방설비기술사 총 7명중 6명이 당협회에서 배출되어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종합방재기관으로서 방재기술의 산실이라는 평을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기대가 주목되고 있다.

소방설비기술사 시험은 관련분야 필기시험, 경력심사 전형, 면접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응시자격자는 소방설비 기사 1급 자격 취득후 7년이상 경력자나 관련학과 4년제대학 졸업후 10년이상 실무 경력자등이며 시험내용은 소방관련 분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및 이에 관련된 지도, 감리에 대한 내용이다.

앞으로 소방기술사들은 우리나라의 낙후된 소방기술 업무를 담당하여 우리의 대형 고층 건물과 다양한 대형 산업 시설등의 방화시설을 값비싼 외화낭비없이 우리의 손으로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소방관련 해외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무역 역조현상 해소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